

한국학 세계화 창달의 전당, 경산대학교

변정환
경산대 총장

1. 설립배경과 건학이념

본 대학의 설립당시 교명은 대구한의과대학이었으며, 1980년 9월 16일 학교법인 제한학원의 인가를 받아 초대 이사장에 본인이 취임함으로써 동양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고조와 민족의학의 중흥과 국학의 전승개발이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교남학맥이 면면히 이어져 생동하는 삼성산 아래 압록국 옛터에서 창학되었다.

선조때부터 내려온 가업인 한의술을 계승한 본인은 평소에 국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의학의 심오한 이치의 개발과 학문적 연구의 체계화·과학화로 국학의 세계화 창달을 소원하였으며,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는 길은 한의과대학 설립을 통하여 후학들을 배출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대학의 창설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대구는 17세기 조선시대부터 약령시를 중심으로 한약의 집산지였고 한약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어 이미 1900년도를 전후하여서는 크게 번창하였으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후 조선시장 규칙 공포로 약령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의 맥을 갖고 있는 대구지역에서는 약령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의과대학 설립을 1960년대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을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숙원사업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이 지역에 한의과대학 설립을 제차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은 1970년 대구시 상동 부지 3,000여 평에 세계 최초의 현대식 한방병원을 준공하여 濟韓한방병원을 개원하고 1971년 제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을 설립함과 아울러, 본인이 경상북도 한의사회 회장을 맡으면서 경북지역 한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대구지역의 한의과대학 설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독립된 한의과대학 설립이 너무 어려워

기존대학의 힘을 빌어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것마저 당시만 하더라도 생약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고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와 선호도가 양의학만큼 높지 않아 한의과대학 설치여론이 크게 일지 못해 좌절되고 말았다.

1978년이 되자 추진위원 대부분이 한의과대학 설립을 포기하였으나 본인만은 그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혼자서라도 독립된 한의과대학을 설립코자 더욱 결심하여, 관계기관에 청원을 하고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이와 함께 1976년 본인은 국제동양의학회를 설립하여 1980년까지 회장직을 맡아 미국, 일본, 자유중국 등 45개국이 가입토록 하여 학회 규모가 확대되고,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한의학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져서 대학 설립 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이에 힘입어 1979년 학계, 관계, 법조계를 통해 많은 협조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학교법인 제한학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함으로써 1980년 9월 16일 마침내 대구한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학의 실제 인가를 앞두고 한의과대학 설립의지가 담긴 건학이념을 정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의학의 심오한 이치를 계발하고 체계화하여 민족의학으로서 승화 발전시키고 이의 실용화와 양산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의료시제 확대를 통한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금세의 총아격으로 각광받는 한의학을 국제적 차원에서 중추국적인 면모를 갖추어 국위선양에 주도적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여 수출입국을 뒷받침한다는 원대한 계획 아래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 및 세계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현황 및 교육목표

경산대학교는 설립 당시의 교명이 대구한의과대학이었고 개설된 학과도 한의학과뿐이었다. 세 사람의 성인(원효, 설총, 일연)을 탄생시켰다고 하여 삼성산이라 명하는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기슭 9만여 평의 교지에 자리를 잡고 십수 년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점진적이면서도 알찬 발전을 도모하여 1990년에 경산대학으로 교명 변경인가를 받고 1992년에는 경산대학교로 종합대학 승격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는 대학에 인문학부(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동양철학과, 경제학과), 한의학부(한의예과, 한의학과), 자연학부(보건경제학과, 환경보건학과, 식품과학과, 생물학과, 정보처리학과, 물리학과, 통계학과), 야간학부(보건경제학과, 한문학과, 동양철학과), 교양과정부 등 5개 학부와 대학원, 보건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부속한방병원을 비롯하여 도서관, 신문사, 방송국, 전자계산소, 출판부, 생활관이 있고, 연구소로는 학생생활연구소, 국제문화연구소, 한국보건문제연구소, 동의학술원, 국학연구소 등이 있으며, 3,000여 명의 학생과 3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대학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부속병원이 자리한 대구 캠퍼스에는 대학원과 한의학과 강의동이 있으며, 120개 병상을 갖춘 한방병원이 있어 한의학의 연구 과학화·체계화의 임상교육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 치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흔히 대학에 대해 학문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라는 말로 그 기능을 요약하고 있

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진부한 느낌이 들기도 하여 우리 대학은 그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개방적 사고와 진취적 의지로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 ② 도덕적 회복과 인격향상에 힘을 기울여 박애와 봉사의 정신으로 인류애의 확충을 추구한다.
- ③ 첨단과학기술을 연마하여 보건, 의료 및 민족 고유문화 창달에 계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3. 발전계획의 방향과 전망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한 경산대학교는 자랑스럽고 특색있는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 대학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한의학 및 국학의 발전과 21세기의 미래사회에 필요한 첨단과학분야, 그리고 기초학문분야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교육여건의 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첫째, 대학의 종합발전계획은 대학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 검토와 연구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축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심층적 검토연구 절차를 밟아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둘째, 학과 증설 및 학생정원 등은 학문의 균형 발전과 대학이 처한 교육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기본적 학문 및 시대적 요청에 필요한 학문분야부터 우선한다.

셋째, 대학의 수월성은 연구와 교수의 자율이 보장되는 데 비례하여 신장된다고 생각하므로, 훌륭한 교수들을 지속적으로 초빙하고 교수대우를 점진

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연구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수 연구 업적 평가제를 도입하고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간다.

넷째, 대학의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체제 구축으로 대학의 규모에 적합한 조직, 제도의 개선을 과감히 실행한다.

다섯째, 우수한 학생의 유치 및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생복지 증진을 꾀하고, 교직원 모두를 위한 복지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여섯째, 교육개방과 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외 우수 대학들과 자매결연 체결로 학문교류의 내용을 실천하며 해외 분교 설치도 연구 검토한다.

오늘날 대학의 발전에서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질적인 성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학과와 학생수는 근본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산업사회의 인력수급에 맞추어 설치학과를 규정하고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산대학교의 발전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여 내실을 다지는 규모로 설계되어야 하며, 발전추세와 교육여건에 비추어 학문연구 요람으로서의 적절한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미래를 준비하며

순환의 진리는 물질문명의 극치에서 정신문명에서의 전환점을 찾게 함으로써 동양의학과 한국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지금, 경산대학교에서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의 세계화를 창달할 수 있는 특색있는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점진적이고 알뜰한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생각되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불충분하다는 것

세 성인을 배출
한 삼성산 기슭
에 자리잡은 경
산대학교는 한
국학 창달의 역
량을 키우고 있
다.



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대학교육의 사명을 다하기
에 부족함이 없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겠
다는 굳은 신념을 다시 다짐하고, 우리 대학의 역
사가 짧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이 더 풍부하다고 희망을 갖는다.

이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산대학교의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인식하여 날로
발전하는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점진적으로 더욱
알찬 대학의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요 사명이다.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대
학다운 대학이 갖추어야 할 모든 기능과 의무를 바
르게 인식하고 각성과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원효,
설총, 일연의 삼 성인이 학문을 닦았다는 유서 깊
은 이 터에 미래를 향한 교육의 전당으로 한국학의
세계화를 창달하는 세계 속의 특색있는 명문사학이
될 것을 확신한다. ▣